
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배 포 일 시 | 2023. 1. 27. ( 금 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담 당 부 서 | 항공안전정책관<br>항공교통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책 임 자 | 과 장   | 곽영필 (044-201-4294)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 당 자 | 사 무 관 | 정혜인 (044-201-4303)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주 무 관 | 이준호 (044-201-4301) |
| 보도일시    | 2023년 1월 30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. 30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 |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## '22년 하늘 지름길에도 적극행정 운영, 비행거리 215만 km 단축, 197억원 유류비 절감 - 연료절감으로 항공사 지원, 탄소배출 저감으로 친환경 실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'22년 하늘길 운영을 분석한 결과, 국제선 276,356대 중 99,115대(36%)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하여 총 215만 Km (약116만 마일)의 비행거리를 줄였다고 밝혔다.
- '21년에는 국제선 총 203,029대 중 26%인 52,982대가 단축항공로를 이용한 것에 비해서 '22년에는 단축비행로 이용률을 36%로 높였고, 교통량 회복의 영향도 더해져, 전년대비 총 단축 비행거리가 121% 증대되었다.

| 구분           | 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| 2021년                     | 2022년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연간<br>총 단축거리 | 1,056,000km<br>(570,033 마일) | 972,000km<br>(524,800 마일) | 2,146,000km<br>(1,158,591 마일) |

- 특히, 국제선 중 남중국 노선이 약 1,152,000km(622,021마일)를 단축 하였으며, 미주일본 노선은 약 378,000km(204,300마일), 다음으로 동남아 노선이 약 201,000km(108,294마일) 단축 운영하여 그 뒤를 이었다.

\* (남중국 노선) 푸둥·심천·하노이·광저우·치앙마이·카트만두·뉴델리 등

\*\* (미주·일본 노선) 도쿄·오사카·앵커리지·로스앤젤레스 등

\*\*\* (동남아 노선) 다낭·홍콩·싱가포르·호치민·타이페이·쿠알라룸푸르 등

| 주요 단축구간    | 단축항공로 이용 교통량<br>(전체 단축항공로 이용<br>교통량 중 차지하는 비율) | 단축거리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남중국 입출항  | 24,150 대 (24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152,000km (622,021 마일) |
| ② 미주·일본 출항 | 16,424 대 (17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78,000km (204,300 마일)   |
| ③ 동남아 출항   | 13,674 대 (14%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,000km (108,294 마일)   |

\* 괄호안의 비율은 전체 단축항공로 이용 교통량 중 해당 구간이 차지하는 비율

□ 단축항공로 이용으로 약 197억 원 상당의 항공유 15,127톤을 절약한 것으로,

○ 이를 통해 코로나-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항공사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, 47,756톤\*의 탄소배출을 저감하여 탄소중립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.

\* 탄소배출량 = 연료소모량 × 3.157KG (출처: ICAO 환경보고서)

□ 국토교통부 정용식 항공안전정책관은 “단축항공로는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들이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관제현장의 적극 행정의 결과로, 유류비 절감뿐 아니라 정시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므로 이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” 라고 밝혔다.

#### ※ 용어 설명

- (단축항공로) 평상시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, 특정한 조건에서 국방부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시항공로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<br><총괄> | 항공안전정책관<br>항공교통과 | 책임자 | 과 장 | 곽영필 (044-201-4294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정혜인 (044-201-4303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주무관 | 이준호 (044-201-4301) |
| 담당 부서         | 항공교통본부<br>항공관제과  | 책임자 | 과 장 | 백태용 (053-668-0241) |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주무관 | 노재준 (053-668-0244) |

